



검찰연합일보 모바일 보기



고위공직자범죄신고
02-6320-0200



고위공직자범죄신고
02-6320-0200



‘세수핑크 대책’ 퍼즐맞춘 정부...키워드는 ‘외평기금→공자기금’

‘외환 방파제’ 외평기금·공공기금 저수지 공자기금, 구원투수 역할



1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유례없는 ‘세수핑크 사태’에 대응할 주요 재원으로 꼽히는 기금(基金)은 일반회계·특별회계와는 달리 특정한 목적을 위해 운용되는 특정 자금을 말한다.

통상 세수결손 재원으로는 활용되지 않지만, 이례적으로 상당액의 기금 여유재원이 생기면서 구원투수로 적극 검토되고 있는 상황이다.

3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주목하는 카드는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과 공공자금관

리기금(공자기금)이다.

다소 복잡하지만, 외평기금의 원화 여유재원을 공자기금으로 넘기면 이를 일반회계에 투입하는 방식이다. 일정 비율까지는 행정부 재량으로 공자기금 자금의 일반회계 전환이 가능하다.

빛을 내지 않고 세수 부족을 메우겠다고 강조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숨겨둔 카드’인 셈이다.

우선 외평기금은 급격한 환율 변동에 대응하기 위한 기금이다.

투기적 수요로 환율이 급등락하게 되면, 보유하고 있는 달러화 또는 원화를 활용해 시장의 환율을 안정시키는 ‘외환 방파제’ 역할을 한다.

지난해부터 고공 행진한 원·달러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해 외환당국은 달러를 팔고 원화를 사들여 왔고, 이에 따라 외평기금에 원화가 이례적으로 대규모 쌓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환율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상황에서 원화 예수금을 ‘재정 실탄’으로 활용할 여유가 있기로 알려졌다. 환율이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지 않는다면 당분간 외평기금의 원화 자금을 시장에 투입할 가능성도 작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외평기금에서 최소 10조원, 최대 20조원의 ‘실탄’ 확보가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분석이 나온다.

외평기금 여유재원은 공자기금을 거치는 방식으로, 일반회계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공공기금의 저수지’로도 불리는 공자기금은 여유가 있는 기금으로부터 재원을 빌리고 재원이 부족한 기금에 돈을 빌려주는 역할을 한다. 국채의 발행과 상환까지 맡은 자금 조달 창구라고 볼 수 있다.

정부가 지출소요를 충당하기 위해 공자기금으로부터 자금을 빌린다. 공자기금이 일반회계에 빌려주는(예탁) 금액, 적자국채가 이에 해당한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일반회계가 공자기금으로부터 빌린 자금은 2019년 34조3천억원에서 코로나19에 따른 지출이 늘어난 2020년 102조8천억원까지 늘어난 뒤 2021년 88조2천억원, 지난해 86조2천억원까지 줄었다.

올해의 경우 45조8천억원을 빌릴 예정인데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해 공자기금이 활용된다면, 일반회계 예탁규모는 이를 웃돌 수 있다.

화하겠다고 밝혔다.

여유가 있는 기금으로부터 공자기금으로 재원을 적극 끌어오겠다는 의미다. 그만큼 일반회계 등 다른 회계·기금이 굴릴 수 있는 자금이 많아지는 셈이다.

내년의 경우 계획된 공자기금의 일반회계 예탁(적자국채) 규모는 81조8천억원이다. 국고채 발행액 가운데 상환액을 제외한 순발행(50조3천억원)보다 많은데, 이 차이만큼 외평기금 등 다른 기금의 재원이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 송진영 기자



해군 “군검사, 해병대에 공식 법리검토 제공 아냐...사건 나눈것”

군인권센터 공개한 음성파일 조작되지 않은 ‘일본’ 입증돼



채 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항형 등의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일 서울 용산구 군사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신문(영장실질심사)에 앞서 군 검찰의 구인영장을 받고 있다.

해군은 해병대 채 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군검사가 해병대 수사단 관계자와 개인적인 의견을 나누는 적은 있지만 공식적인 법리검토를 제공한 적은 없다고 3일 밝혔다.

해군은 이날 국방부 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에서 “해군 군검사가 해병대 수사 과정에서 법리검토를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지난달 31일 기자회견을 열어 해병대 수사단 관계자와 해군검찰단 소속 A 군검사의 통화 녹음이라는 음성 파일 2개를 공개했다.

통화는 국방부 검찰단이 경복경찰청에서 해병대 수사단의 사건기록을 회수한 직후인 지난달 2일과 이튿날인 3일 이뤄졌다.

파일에서 해군 검사는 음성상 해병대 1사단장의 책임을 인지하고 관련 판례를 설명했으며, 수사에 외압이 가해질 것을 우려하며 “사본을 떠 놓고 잘 보관하라. 너무 무서운 일이다”라고 조언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문제의 음성파일이 조작됐을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지만 해군은 실제 통화가 이뤄진 것임과 인정했다.

다만 통화 내용을 두고 “이는 해병대 수사관의 부탁과 전날 법리검토 요청 거절 등에 대한 해당 군검사의 개인적 조치”라며 “해당 군검사는 해병대 수사단의 법리검토 요청에 대해 법리검토를 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해병대 수사단에서 경복경찰청에 조사기록을 인계하기 전날인 8월 1일 오후 해병 1사단을 관할하는 포항 주재 해군 군검사에 대해 인계서에 대해 법리검토를 요청했는데, 군 검사는 해병대 수사관계관 등 여러 명이 있는 자리에서 공식적인 법리검토가 제한된다고 명확히 설명했다는 것이다.

해군은 “해당 군검사는 평소 업무협조 관계에 있던 수사관의 부탁에 대하여 개인적인 생각과 의견을 나누는 내용 중 일부를 본인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 주장한 것에 대하여 유감을 밝혔다”며 “관련 내용이 확산하는 것에 대하여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군은 또 “(군인권센터는) 국방부검찰단이 해군검찰단에 군검사들을 입대속 시키라는 지시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는데, 이 또한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 곽진수 기자

우리 마음속 첫번째 금융

World EXPO 2030 BUSAN, KOREA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우리금융그룹이 함께 응원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시대앞에 적아지지 않을 힘
더 나은 미래로 도약할 힘

우리가 힘을 모을수록
우리 청년의 힘도 강해질 테니까

|우리는행 대국민 상생금융 프로젝트|
**우리 청년에게
우리의 힘을**

기대출 제한 없고, 금리까지 부담없는
우리 청년도약대출

우리 청년에게 힘이 되는 우리 청년도약대출

확정금리 연 5% (최초 1년간)	기대출 한도 차감 없이 최대 500만원 대출 가능 (CB등급에 따라 차등)	중도상환수수료 Zero 우리WON뱅크 통합 무방문/무서류 대출
--------------------	---	---------------------------------------

우리WON뱅크
비로 가입하기

교육부·법무부, 교원 대상 아동학대 관련법 집행 개선 TF 구성

교육부와 법무부는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공동 전담팀(TF)을 구성하기로 합의했다고 3일 밝혔다.

교육부와 법무부는 정당한 교육활동을 한 교사가 처벌받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법 집행과정에서 교원의 교권과 기본권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전담팀을 운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전담팀에는 교육부와 법무부 외에 보건복지부와 경찰청도 참여한다.

전담팀은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 처리 과정의 실효적인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이를 통해 아동을 보호하되 교사들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우려 없이 교육활동에 전념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회에서 아동학대 관련 법 개정이 언제 되는지와 무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가운데)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오른쪽)과 대화하고 있다.

하게, 학교 현장의 특수성과 교원 직무의 중요성을 충분히 반영해 선생님들의 교육적 판단이 위축되지 않을 수 있도록 아동학대 관련 형사법을 집행하겠다”라고 밝

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아동학대 신고로 교육이 위축되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공교육을 바로 세울 수 없

다”라며 “교육청에서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교사를 직위해제하던 잘못된 관행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하겠다”라고 전했다. / 송원기 기자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와 측근 ‘천하용인’ 중 한명인 이기인 경기도의원이 2일 오후 대구지맥페스티벌이 열리고 있는 달서구 두류공원 야외음악당에서 지지자 등 시민들과 만나 대화하고 있다.

이준석 “대구서 정정당당히 겨룬다면 가장 나쁜 분과”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2일 “만약 대구에 가서 정정당당히 겨뤄보자고 한다면 (동구율이 아닌) 가장 나쁜 분을 골라서 붙겠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대구지맥페스티벌이 열리고 있는 두류공원 야외음악당에서 지지자 등 시민들과 만나 “윤해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을 보면 열을 받아서 보수 확장보다는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전 대표의 이런 발언은 내년 총선 대구 출마 가능성을 열어 놓으면서 TK 지역 국민의힘 의원들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방송에 나와서는 내가 (서울) 노원병에 나가줘야 한다고 말하는데 그분들이 해달라는 대로 제 진로를 결정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노원병에 안 나가겠다는 말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대구에서 요즘 정치하는 분들 참 말들이 없다. 공천받겠다고 맹종 모드로 가는 사람들이 조금씩 나올 것”이라며 “윤해관이라는 사람들은 그런 분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가 하나의 목표를 삼고 거기에 대해 노력하면 ‘윤해관’들은 그걸 막겠다고 달려드는 분들이기 때문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갈 생각이다”

고 했다. 내년 총선과 수도권 위기론에는 “당대표나 원내대표를 지낸 사람이 서울에 가서 이기지 못하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며 “자기들(당 지도부)도 (수도권이) 위기인 걸 알고도 아닌 척 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최근 ‘항명’ 혐의로 군 검찰에 입건된 박정훈 대령(해병대 전 수사단장) 사례를 들며 “국방위 의원들이 전부 박 대령을 조리돌림 하려고 나갔는데 보수는 이것만 봐도 선거에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했다.

‘신당 창당 가능성’에 대해서는 “오늘은 신당 얘기를 안 했으면 한다”며 “정작 나중에 신당 창당을 해야 할 수 있는 상황에 동력이 없게 된다”고 말했다.

지역 국회의원 대부분 축제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지적에는 “대구 정치인들은 젊은 사람들이 공천 안 해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고 안 찍어도 당선된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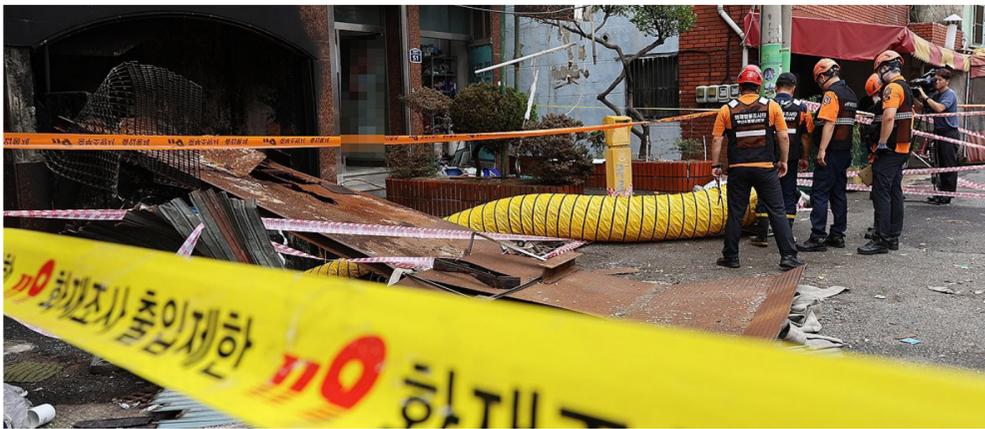
그러면서도 “홍준표 대구시장은 젊은 사람들과 닮아 있다고 생각한다”며 “공천을 줄 수 있는 나이 든 당원들이 싫어할 만한 행동을 한다. 지휘철 무임승차(연령 조정)나 관련단체에 나가는 돈을 줄인다고 한다”고 비교했다.

이 전 대표는 “대구에서 요즘 정치하는 분들 참 말들이 없다. 공천받겠다고 맹종 모드로 가는 사람들이 조금씩 나올 것”이라며 “윤해관이라는 사람들은 그런 분들”이라고 지적했다.

/ 차민혁 기자

부산 목욕탕 화재 원인 ‘유증기’ 추정...추가 감식 예정

1차 합동감식, 유류 저장 탱크서 유증기 발생 후 점화원 만난 것으로 추정



목욕탕 화재 합동 감식

소방관과 주민 등 24명을 다치게 한 부산 목욕탕 폭발 화재 원인은 ‘유증기’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2일 오후 부산 동구 매곡지 마을 목욕탕 화재 현장에서 열린 소방·경찰·국과수 1차 합동 감식에서 김태우 국립소방연구원 화재안전실장은 “유증기가 폭발의 원

인이 되지 않았을까 추정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단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현재 목욕탕 지하 1층에 유류 저장탱크가 위치하고 있다”며 추정의 근거를 밝혔다.

유증기는 기름방울이 기화해서 안개 형태로 공기 중에 분포된 것을 말한다.

유증기는 정전기나 열 등 점화원을 만나면 갑자기 폭발 사고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 실장은 “유류 저장탱크에서 유증기가 발생했고, 어떤 점화원이 또 있다는 가정하에 유증기 폭발이 아닐까 추정한다”면서 추가 점화원과 관련해서는 “조사를

더 해봐야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현재 목욕탕 지하층에 유증기로 추정되는 기체가 아직 남아있는 상태이고, 지하층에서 차오르는 물이 빠지지 않고 있어 4일 2차 합동 감식을 추가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차 감식으로는 정확한 화재 폭발 지점 등도 확인이 어려웠다는 입장이다.

김 실장은 “2차 감식 때는 바닥 면에 물이 제거될 것이고, 유증기도 다 배출될 것이기 때문에 유증기관에서 감정하시는 분들이 좀 더 세밀하게 조사할 수 있을 것 같다”면서 “어떤 화재 패턴이 있었는지 폭발의 원인은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1일 오후 1시 40분께 부산 동구 4층짜리 목욕탕 건물 지하 1층에서 폭발을 동반한 화재가 발생했다.

이 폭발 사고로 소방관 10명과 경찰관 3명, 관할 구청장 등 공무원 4명, 주민 7명 등 총 24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이 중 소방관 2명은 안면부에 2도 화상 등 중상을 입었고, 나머지 22명은 경상이다.

/ 심현오 기자

안전한 SMR 개발로 원전을 미니하게 한수 UP!

원전에서 생산한 수소를 클린에너지로 한수 UP!

에너지를 클린하게 안전하게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력원자력은 한수 앞선 에너지 기술로 대한민국 에너지의 미래를 만들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 원자력 수출로 한수 UP!

BUSAN is READY 2030세계박람회 부산유치 한국수력원자력이 응원합니다

與 “윤미향, 반국가세력과 함께 대한민국 위협…국회가 제명해야”

‘日총련 행사 참석’ 윤 의원 맹공…“野, 현실 부정하며 ‘이념 논쟁’ 운운”

국민의힘은 지난 1일 일본 도쿄에서 친북단체인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총련)가 주최한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추모식에 참석한 무소속 윤미향 의원의 제명을 촉구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3일 논평을 내고 “국민 혈세를 받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우리 정부의 도움을 받아 일본에 입국해 정작 대한민국의 존립을 위협하는 단체와 어게를 나란히 했다”며 “과연 이런 윤 의원을 대한민국의 일원으로 인정하는 게 맞느냐”고 지적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윤 의원은 대한민국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며 “국회는 반국가세력과 대한민국을 위협한 윤 의원 제명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산전제주의 세력이 한미일 협력체계에 대한 한국과 국민을 위협에 빠뜨릴 것처럼 호도한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언급하며 “정작 멀지 않은 곳에



윤미향 의원

그 세력이 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윤 의원을 향해 한마디도

못 하면서 정작 대통령을 향해 비난의 화살을 들었다. ‘21세기 대한민국에 공산전제주의 세력이 대체 어디에 있다는 말인가’며 황당한 인식까지 그대로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그러면서 “당장 반국가단체와 함께 한 윤 의원은 물론이거니와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받은 그의 남편,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한 혐의를 받는 윤 의원의 전 보좌관, 군사기밀 유출 혐의를 받는 민주당 설훈 의원의 전 보좌관은 어찌 설명할텐가”라고 따졌다.

강 수석대변인은 “올해만 해도 술한 간첩단 사건이 속속 드러나는 마당에 여전히 현실을 부정하며 ‘이념 논쟁’ 운운하는 민주당은 국민께 백년 사죄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결국 지난 정권부터 이어져 온 이념 단일한 인식이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반국가세력이 활개를 칠 수 있도록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 임혁준 기자



‘아파트 하자’ 많은 15개 건설사 중 5개는 ‘시공능력평가 톱10’

최근 누락 사태를 계기로 아파트 하자 문제에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최근 5년간 공동주택(아파트) 하자 판정을 가장 많이 받은 업체 15곳 중 5곳이 시공능력평가 ‘톱10’ 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2019~2023년 건설사별 공동주택 하자 판정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업체별로는 DL건설이 899건으로 가장 많았다. 최근의 최근 누락 사태를 촉발한 GS건설은 678건으로 2위였다.

이어 중흥토건 626건, HDC현대산업개발 444건, 두산건설 403건, 대우건설 374건, 롯데건설 344건, DL앤씨 283건, SM상선 267건, 대방건설 263건, 호반산업 241건, 계룡건설산업 228건, 현대건설 214건, 한양 180건, 대명종합건설 179건 등의 순이었다.

이들 15개 업체 중 현대건설(2위), 대

우건설(3위), GS건설(5위), DL앤씨(6위), 롯데건설(8위) 등은 올해 시공능력평가 순위에서 10위 안에 이름을 올린 국내 건설업체 대표 기업들이다. 또 HDC현대산업개발(11위), DL건설(13위), 대방건설(14위), 중흥토건(15위), 계룡건설산업(18위) 등은 20위 안에 포함된다.

건설공사 실적, 경영상태, 기술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매겨지는 것이 시공능력평가 순위다. 따라서 공공·민간 공사에서 발주자가 각종 기준으로 활용하는 공신력 있는 지표다.

하자 판정 건수 상위 15개 업체 가운데 하자 심사 접수 건수(하자 수 기준)는 GS건설이 3천14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중흥토건(2천167건), HDC현대산업개발(1천955건)이 뒤를 이었다.

국토부는 공동주택 하자를 놓고 사업주체와 입주자 간 분쟁이 있을 경우 이를 조정해주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한다. / 조영수 기자

“부인 회사 주식 못팔겠다”

총리 비서실장, 행정소송 제기

박성근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배우자의 수신택사 회사 주식을 백지신택사라는 정부 판단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박 실장은 3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지난달 말 서울행정법원에 주식백지신택사위원회 백지신택사 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며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돼 백지신택사는 보류됐다”고 밝혔다.

박 실장은 앞서 지난 2월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정심위)에

배우자 주식의 백지신택 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이에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아보겠다고 소송을 시작한 것이다.

중앙행정심위는 박 실장이 비서실장 자리에서 얻는 정보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꾀할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박 실장은 총리비서실 직제상 자신은 오로지 비서 업무를 맡고 있으며, 추상적 위험만으로 기업 대주주인 배우자의 회사 주식을 처분하라는 것은 개인 재산에 대한 침해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박 실장 배우자는 서희건설 창업주 이봉관 회장의 장녀다. 현재 회사 사내이사로 경영에 참여하고 있다.

올해 3월 고위공직자 정치 재산공개 자료를 보면 박 실장 배우자는 서희건설(187만2천주)과 서희건설 계열사 유성티앤에스(126만4천주) 지분을 포함해 총 64억9천만원 규모의 주식·채권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

박 실장 배우자는 투자 목적으로 보유한 삼성전자(1천57주), 네이버(100주) 등은 팔았지만 회사 주식까지 정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인사혁신처 소속 주식백지신택심사위원회는 작년 12월 박 실장 본인과 배우자, 자녀들이 보유한 국내주식을 모두 처분하



국무회의를 향하는 박성근 총리 비서실장

라고 요구한 바 있다.

앞서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도 배우자가 바이오 회사에 근무하면서 받은 8억 2천만원어치 주식 등을 백지신택하라는 주식백지신택심사위원회 요구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 진성훈 기자

‘민생’ 페달 밟는 與 “먹고사는 문제만”…野와 차별화 시도

‘100일 민생입법’에 금주부터 ‘민생버스’…총선 전 ‘일하는 與’ 이미지 총력전



대화하는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21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를 맞은 국민의힘 지도부가 ‘민생’과 ‘경제’를 방향으로 잡고 각종 정책·현장 행보에 가속페달을 밟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및 ‘방탄 단식’ 논란으로 어수선한 틈을 타 ‘일하는 집권여당’ 이미지를 각인시키며 차별화를 꾀하는 전략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정기국회에 들어가면서 국민안정·미래대비·사회개혁·경제민생 등 4개 분야 중점 추진 법안을 추리고서 민주당을 향해 “밤낮없는 협상으로 합의를 이루자”고 제안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특히 개원 일성으로 “100일간의 온전한 민생의 시간”을 강조했다.

집권당으로서의 면모를 부각하는 한편으로 ‘거대 야당’ 반대로 진척이 없는 각종 정부 개혁과제·입법을 압박하려는 의

도가 내포된 것으로 풀이됐다.

이와 함께 김기현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이번 주 ‘민생버스’ 투어를 시작했다.

첫 행선지는 수도권이 될 예정이다. 추석 명절 전까지 주 2회 전국 곳곳의 현장을 방문한다는 계획이다.

당 관계자는 3일 통화에서 “어디에서 될 하든, 포커스는 경제”라며 “경제·산업·노동 현장에 집중하면서 1박 2일로 중소기업 기숙사에서 잠도 자고, 건설 현장에서 밥도 먹어 보며 현장의 애로사항을 가장 가까이에서 들어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이 정기국회 초반 민생과 경제에 집중하는 건 결국 총선을 겨냥한 포석이다.

유권자의 호주머니 사정과 먹고 사는 문제를 살피지 않는 한 총선 승리를 장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정부 여당이 이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신뢰를 주는 것이 30% 초중반에 머무는 당정 지지도를 끌어올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민주당 지지도가 연일 하락세지만 그 이탈 표심을 전혀 흡수하지 못할뿐더러, 역대 최대치를 이어가는 무당·부동층 표심이 여전히 요지부동인 점도 국민의힘이 민생과 경제를 전면에 내세운 배경으로 풀이된다.

특히 상대적 약세인 수도권과 중도층을 총선 전까지 이쪽으로 끌어당기기 위해서라도 ‘민생’과 ‘경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게 당내 보편적 시각이다.

수도권의 한 의원은 “연말까지 당정 지지율을 최소한 40%대로 끌어올려야 한다”며 “최소한 지도부는 갈등 사안에 대한 언급을 지양하고, 오로지 먹고사는 문제에 집중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 송영위 기자

삼성생명

삼성생명은 생각했습니다

당신이 좋아할

당신에게 반가운

당신이 칭찬할

당신에게 힘이 될

당신이 행복할

당신에게 도움될

당신에게 멋진

당신이 기뻐할

당신을 웃게 할 소식이 되자

아플 때, 걱정될 때 생각하는 보험을 넘어 언제라도 반가운 보험이 되고 싶습니다. 더 건강하게, 더 든든하게 당신의 인생에 좋은 소식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좋은 소식의 시작

▶ 이 광고의 모든 이미지는 시로 생성되었습니다

▶ 이 광고의 모든 이미지는 시로 생성되었습니다

평택 환전소 외국인 강도 1명 구속...“도망할 염려 있어”

경기 평택시의 한 환전소를 턴 뒤 해외로 달아나려다 붙잡힌 외국인 강도 피의자가 구속됐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김상호 판사는 2일 특수강도 혐의로 긴급 체포된 타지키스탄 국적 A(34)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11시 50분께 평택시 신장동 한 환전소에서 같은 국적 B(34) 씨와 함께 모의 총기로 60대 여성 직원을 위협한 뒤 현금 8천달러(1천여만원)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후 도난 차량을 비롯한 차 2대와 조력자의 차량 1대 등으로 이동 수단을 바꿔가며 인천공항에 도착해 해외



30일 경기 평택시의 한 환전소에서 외국 국적의 남성 2명이 직원을 위협해 현금을 빼앗아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추적 중이다. 사진은 CCTV 화면에 찍힌 범행 후 피의자들

도피를 시도했으나, 전날 오전 1시 40분께 출국 대기장에서 긴급 체포됐다. 함께 범행한 B씨는 범행 당일인 지난달

30일 오후 4시 35분께 이미 우즈베키스탄 행 비행기를 타고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해 7월 국내로 입국해 중고차를 본국으로 팔아넘기는 일을 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공범 B씨 역시 비슷한 시기에 입국한 뒤 줄곧 체류한 점을 고려해 경찰은 이들이 강도 범행을 위해 입국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A씨가 구속됨에 따라 이들의 범행 경위와 빼앗은 돈의 행방 등을 밝히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다만 A씨가 범행을 부인하는 데다, 의사소통에 통역을 거쳐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혐의 입증에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경찰은 A씨 등의 도피를 도운 같은 국적의 조력자 3명도 범인도피 혐의로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또 도피한 B씨에 대해서는 인터폴과 공조해 행방을 쫓고 있다. / 박준환 기자



2일 오전 서울 양천구 소재 초등학교 앞에 마련된 숨진 교사 A씨의 추모공간에서 한 추모객이 눈물을 닦고 있다.

숨진 양천구 초등학교사 발인 조희연 교육감, “철저히 조사”

지난달 31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서울 양천구 S초등학교 교사 A(38)씨의 발인식이 3일 오전 서울 은평성모병원에서 열렸다.

유족과 친지들은 빈소에서 발인에배를 올리며 영면을 기원했다. 찬송가를 부르던 사이 유족들은 고개를 떨군 채 연신 눈물을 흘렸다.

예배가 끝난 뒤 옛날 얼굴의 딸이 엄마의 영정 사진을 들고 발인식장으로 향했다. 발인식은 오전 7시30분 유족과 친지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치러졌다.

운구행렬이 시작되자 유족은 몸을 가누지 못한 채 “우리 OO이가 왜 가냐고 나 어떻게 하라고”라며 오열했다. 다른 조문객들도 숨죽여 눈물을 흘렸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발인식에 참석해 유족의 손을 잡고 위로했다. 조 교육감은 “혹여라도 선생님이 고통받은 부분이 있으면 철저히 조사할 테니 걱정하지 마

시라”며 “인터넷에서 (악성 루머를 퍼뜨리는) 나쁜 사람들도 있는데 철저히 조사해서 고인의 가시는 길이 아름답게 하겠다”고 말했다.

14년 차 초등교사인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7시께 경기 고양시 덕양구의 한 아파트에서 추락해 숨졌다.

A씨는 육아휴직 이후 지난해 2학기 교과전담교사로 복직했다. 6학년 담임을 맡은 지난 3월부터는 연가와 병가 등을 썼다. 사망한 날은 질병휴직 마지막 날이었다. 동료 교사들은 그가 올들어 6학년 담임을 맡고 나서 업무에 어려움을 토로했다고 주장했다.

서울 서이초 교사의 49재(9월4일)를 앞두고 초등교사가 또 사망하면서 진상규명과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교직 사회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전날 국회 앞 교사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20만명이 참가했다. / 정수경 기자



보훈단체, 나흘째 광주서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사업’ 반대 집회

중국 혁명음악가 정율성(1914~1974) 기념사업 전면 철회를 촉구하는 대한민국 호국보훈단체 연합회의 반대 집회가 나흘째 광주에서 이어졌다. 연합회 소속 전몰군경유족회·미망인회 등 2개 단체는 2일 오후 광주 남구 양림동에 조성된 정율성 거리에서 회인 600여명(주최 측 추산)이 참여한 가운데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사업’ 반대 집회를 열었다.

지난달 30일부터 13개 보훈단체 공동 주관으로 연일 열린 집회와 동일하게 참가자들은 광주시에서 사업 전면 철회를 촉구했다. / 이숙현 기자

또, 광주에서 태어났으나 중국으로 귀화한 뒤 조선인민군행진곡·중국인민행방군 군가를 작곡한 과거 행적을 재차 지적했다.

미망인회 관계자는 “강기정 광주시장과의 면담을 요청했고, 1주일 이내로 답변을 주기로 했다”며 “면담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재차 반대 집회를 열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광주시청에서 나흘째 반대 집회를 연 두 단체는 이후 동구 불로동 정율성 생가를 방문한 뒤 해산할 예정이다. / 이숙현 기자

관세 고액 체납자 신상 공개에도 징수는 체납액의 0.02% 그쳐



체납자 압류물품

고액의 관세 등을 내지 않은 체납자 249명의 신상이 지난해 공개됐으나, 이들에 대한 징수 실적은 체납액의 0.02%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관세청이 공개한 고액·상습 체납자는 249명으로 이들의 체납액은 1조7억원이었다.

관세청은 관세청 소관의 관세와 내국세, 부가가치세 등을 2억원 이상 체납한 뒤 1년이 지난 사람의 신상을 공개한다. 자발적인 세금 납부를 유도하려는 목적이다.

그러나 올해 들어 7월 말까지 고액·상습 체납자로부터 걷은 체납 징수액은 1억9천만 원이었다. 체납액 대비 징수 실적이 0.02%에 그친 것이다.

매해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으나, 체납액 징수 실적이 저조하다고 양 의원은 지적했다.

2017년 고액·상습 체납자 192명의 체납액 3천224억원 중 그 다음 해 거둔 징수액은 0.45%였다.

지난해 체납 규모가 가장 큰 개인의 체납액은 4천483억원이었다.

양경숙 의원은 “체납자에 대한 행정 제재를 강화해 불성실 납세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해야 한다”며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을 1억원 이상인 체납자로 확대하는 등 자발적인 납세를 유도해 체납 조세 징수율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 손현우 기자

동포 여성 흥기 협박 베트남 불법체류자 검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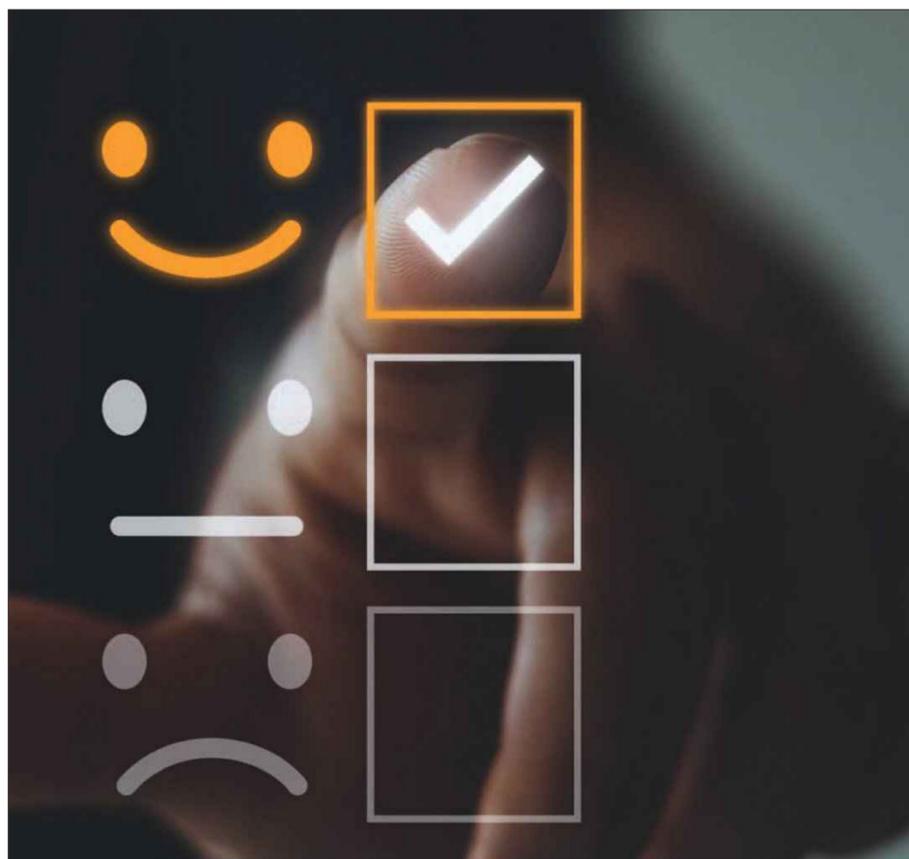
베트남 출신 40대 남성이 동포 여성을 폭행하고 흥기로 협박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신원 조회 과정에서 위조 여권이 들쭉나는 바람에 불법 체류가 확인돼 추방될 신세가 됐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후 1시 30분께 고양시 내 한 아파트에서 “남자가 나를 때리고 흥기로 죽이려 한다”는 신고가 112 상황실에 접수됐다. 출동한 경찰은 문을 강제 개방한 뒤 진

입해 거칠게 저항하는 베트남 출신 40대 남성 A씨를 제압했으며 동포인 결혼이주 여성 B씨를 위협할 때 사용한 흥기를 압수했다.

A씨는 신분증을 요구하는 경찰관에게 여권을 보여 줬지만 조회 결과 가짜로 드러났다. A씨는 이날 지인인 B씨의 집에 방문했다가 말다툼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조사한 뒤 신병을 출입국 사무소에 넘겼다. / 남연우 기자



손해보험에 대해 상담받고 싶을 땐?

손해보험협회 상담센터를 이용해 보세요!

전화 대표 콜센터 02-3702-8500

인터넷 & 모바일 손해보험협회 소비자포털 (consumer.knia.or.kr) 접속 → 보험상담 접수

카카오톡 '손해보험협회 통합서비스센터' 채널 추가 '상담' 메뉴 클릭 *이용 가능시간: 09:10~11:30, 13:10~17:30 (주말, 공휴일 제외)

· 변호사, 손해사정사 등 보험상품별 전문 인력이 제공하는 전문 상담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보험소비자가 어디에서든 손쉽게 상담받을 수 있도록, '22.6.14.부터 카카오톡 상담 시스템을 정식 오픈하였습니다.

사법 리스크에도 끄떡없네...“美 공화당원 59%, 트럼프 지지”

2위 디샌티스에 46%포인트 앞서...나머지 후보는 한 자릿수 지지율

4번째 기소로 역대 미국 대통령 사상 첫 ‘머그샷’(범죄인 인상착의 기록 사진)까지 남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에서는 여전히 압도적인 지지율을 보이며 경쟁 후보들을 가뿐히 따돌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일(현지시간) 공화당 유권자 600명을 대상으로 8월 24~30일 대선 후보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난 4월 대비 11%포인트 상승한 59%를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공화당 2위 후보인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주 주지사는 지지율이 13%로 떨어져 트럼프 전 대통령에 46%포인트나 뒤처졌다.

지난 4월 두 후보의 지지율(트럼프 48%·디샌티스 24%)과 비교하면 1~2위 격차가 2배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그의 후보들은 모두 한 자릿수 지지율에 머물렀다.

공화당 후보 토론에서 깊은 인상을 남겼던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와 ‘투키’ 비백 라마스와미는 각각 지지율이 8%, 5%에 그쳤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 공격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크리스 크리스티 전 뉴저지주 주지사, 예사 허친슨 전 아칸소 주 주지사는 각각 3%, 1%의 저조한 성적을 내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그중 크리스티는 공화당 유권자의 73%가 ‘비호감’이라고 답해 가장 인기 없는 후보로 전락했다.

2020년 대선 뒤집기 의혹과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를 거부해 그의 지지자들 사이에서 ‘배신자’로 낙인찍힌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도 지지율 2%로 고전했다.

팀 스콧 연방 상원의원 역시 2%의 지지를 얻으며 정 체된 모습이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을 향한 맹목적 지지

는 최근 일련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유권자들의 반응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 WSJ에 따르면 공화당 유권자의 60%가 트럼프 전 대통령 기소에 정치적 동기가 숨어있고 가차도 없다고 느꼈다.

또한 78%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대선 뒤집기 시도가 정확한 선거 결과를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노력이라고 여겼다. 이외 단 16%만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패배한 선거의 승인을 불법적으로 막으려 했다고 봤다.

특히 응답한 유권자의 48%는 기소로 인해 2024년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 투표할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고 주장했다. 반대로 기소 이후 그에게 투표할 가능성이 작아졌다는 의견은 16%로 집계됐다.

이 밖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조 바이든 대통령, 제3당 후보와의 가상 대결에서도 근소한 차이로 앞섰다.

등록 유권자 1천500명을 대상으로 8월 24~30일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은 40%, 바이든 대통령은 39%, 부동표는 17%였다.

양자 대결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각각 46%를 차지했고 8%가 부동표였다.

/ 송원기 기자



체포된 에리트레아 난민

이스라엘서도 에리트레아 반정부 시위로 폭력사태...100여명 부상

이스라엘에서 2일(현지시간) 에리트레아 이주민들의 반정부 시위로 폭력 사태가 발생해 100여명이 다쳤다.

로이터통신과 AP통신 등은 이날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서 열린 에리트레아 대사관 후원 혁명의 날(9월 1일) 행사에서 반정부 시위대와 정부 지지자들이 충돌했다고 보도했다.

현지 경찰은 시위대가 이날 오전 공관에 침입해 의자를 부수고 진열품을 파손했으며, 오후에는 시위 규모가 더욱 커졌다고 설명했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시위대는 가게 창문과 차량 앞 유리를 깨는 등 과격 시위를 이어갔고 경찰은 고무탄과 수류탄을 사용해 진압에 나섰다.

이스라엘 의료 당국은 경찰 30여명을 포함한 114여명이 부상으로 치료받고 있다고 밝혔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그중 최소 16명은 중상을 입었다. 한 병원은 총상을 입은 피

해자 11명을 치료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은 이날 오후 늦게 시위대 대부분을 철수시켰다며 현장이 통제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39명이 체포됐으며 테이저건과 갈, 군봉 등이 압수됐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3일 긴급회의를 소집해 충돌에 가담한 용의자들에 대한 강제 추방 등 처분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총리실은 성명에서 시위대를 ‘불법 침입자’로 규정했다.

최근 수년간 에리트레아인 수만 명이 독재를 피해 해외 망명길에 올랐다. 이스라엘에는 그중 2만5천500명가량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시위에 참여한 에리트레아인도 대부분 독재 정권의 무기한 징병과 강제 노동, 탄압을 피해 정착한 난민들이었다.

이들 난민은 해외에서 열리는 정부 후원 행사들이 30년 장기 집권 이사이아스 아프웨르키 대통령의 선전 도구로 쓰인다고 주장했다. / 박경호 기자

호주 경찰, 내년 6월 총선까지 솔로몬제도 치안 맡기로

中과 경찰 협력에도 내년 총선까지 안보 조약 연장



솔로몬제도에 배치되는 호주 방위군

남태평양 섬나라 솔로몬제도도 중국과 안보 협정에 이어 경찰 협력까지 맺었지만, 호주가 2024년 6월 총선까지는 경찰력 지원을 계속하기로 했다.

3일(현지시간) 일간 가디언 오스트레일리아에 따르면 솔로몬제도 정부는 지난 1일 성명을 통해 호주 경찰이 내년 총선거

지 치안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솔로몬제도 정부는 지난달 4일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에게 오는 11월에 있을 태평양 연안 국가들의 올림픽인 피시픽 게임과 내년 6월 총선을 위해 호주 경찰의 주둔을 연장해 달라고 공식 요청했다며 “호주의 긍정적인 대응으로 두 중요

한 행사에서 보안 공백이 확실히 메워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7년 8월 호주와 솔로몬제도는 자연 재해와 각종 보안 위협이 발생하면 호주 경찰과 군인을 솔로몬제도에 배치할 수 있도록 안보 조약을 체결했다.

2021년 11월 솔로몬제도에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벌어지자 호주는 이 조약에 따라 300명이 넘는 호주 연방 경찰과 방위군 등을 솔로몬 제도에 배치했다.

솔로몬제도는 안정을 찾았지만, 소가바레 총리는 11월 피시픽 게임 때까지 파병 인력을 유지해 달라고 요청했고, 이에 따라 호주 경찰들은 지금도 솔로몬제도에 남아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솔로몬제도는 지난해 4월 중국과 치안 지원은 물론 유사시 군대도 파견할 수 있는 안보 협정을 체결했다.

이 협정에 따라 중국은 솔로몬제도로 경찰을 보내 왕립 경찰대를 훈련하고 장비를 들여오고 있다. 또 지난 7월에는 지역 치안과 사이버 보안까지도 중국과의

치안 협정을 확장했다.

중국이 솔로몬제도를 중심으로 남태평양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려 하자 호주는 솔로몬제도에 피시픽 게임 이후에도 호주 경찰을 남기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솔로몬제도는 2017년에 맺은 안보 조약을 재검토하겠다고 부정적으로 대응했다. 하지만 이날 발표로 내년 6월까지는 호주 경찰이 솔로몬제도에 남게 됐다.

/ 최병훈 기자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 탄생 100주년 맞춰 기념관 세운다

의견 수렴 거쳐 2026년 설립 계획

영국 정부가 2026년 엘리자베스 2세 여왕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 상설 기념관을 세운다.

3일(현지시간) AP통신과 AFP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영국 정부는 성명을 통해 작년 9월 서거한 엘리자베스 여왕의 기념관 설립 계획을 발표했다.

엘리자베스 여왕의 개인 비서였던 로빈 잔브린이 새로 출범한 독립기구 ‘엘리자베스 여왕 기념위원회’ 의장을 맡아 계획을 추진한다.

올리버 다우든 영국 부총리는 “잔브린 경이 우리나라와 영연방에 대한 엘리자베스 여왕의 헌신에 알맞은 헌사를 설계하는 중요한 작업을 시작한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엘리자베스 여왕의 공적 생활과 그가 지지해온 가치 등을 고려해 여왕을 기리는 국가 유산 프로그램



엘리자베스 2세 여왕

도 제안한다는 방침이다. 잔브린은 “긴 재위 기간 그가 보여준 국민 생활에 대한 놀라운 공헌을 미래 세대에 알리기 위한 특별한 도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잔브린 외에도 왕실 고위 관계자, 정치인, 전문가 등이 위원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대중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도

거친다. 완성된 위원회 권고안은 찰스 3세 국왕과 리시 수내 총리에게 전달된다.

1926년 탄생한 엘리자베스 여왕은 1952년 즉위해 70년이라는 영국 최장 재위 기록을 세우고 지난해 96세의 나이로 별세했다.

/ 김유정 기자

KB금융그룹 | 국민과 함께 금융 파트너

World EXPO 2030 BUSAN, KOREA |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KB국민은행이 함께 응원합니다

환전에 혜택을 꼭 채웠다

KB스타뱅킹에서 만나는

KB외화머니박스

환율 낮을 때 모아두고 여행갈 때 바로 찾고
환율 우대는 최대 90%까지!
이런 게 KB국민은행의 새로운 환전혜택!

KB외화머니박스 KB외화머니박스는 KB스타뱅킹에서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환전 서비스입니다

1 최대 90% 환율 우대
높은 환율 혜택을 기본, 원하는 KB국민은행 영업점에서 수령까지

2 자유로운 보관과 출금
수령점 및 수령일 지정없이 보관, 출금, 도맡기, 선입금 자유롭게

3 편리한 외화 배달 서비스
원천인 외화 실물도 택배처럼 원하는 장소에서 수령하세요

KB 국민은행

추석 앞두고 연안여객선 안전점검...하도급 대금 지급실태도 점검

해양수산부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오는 4~15일 전국 연안여객선 153척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추석 연휴는 여객선을 이용하는 귀성객의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로, 올해는 개천절(10월 3일)까지 이어지는 황금연휴인 만큼 여객선을 타고 섬을 찾는 관광객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수부와 관계기관, 국민안전감독관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은 연안여객선 설비, 관리 실태, 이용객의 승·하선 안전 절차 준수 여부, 여객 인과 관리를 위한 적정 안전요원 배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또 한반도에 영향을 준 태풍의 상당수



가 가을에 발생한 만큼 태풍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비상대응 절차와 선내 비상 훈련 여부 등도 종합적으로 점검한다.

해수부는 늦어도 추석 연휴 귀경길이

시작되는 오는 27일 전까지는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모두 시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해수부는 같은 기간 항만건설 현장 하도급 대금 등 지급실태 점검에 나

선다.

현재 진행 중인 항만건설공사 현장에서 공사 추진 실적에 해당하는 하도급 공사 등에 적정 대가를 지급했는지, 원도급자가 공사 기성금 등을 받은 후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기한 안에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지급했는지 등을 중점 점검한다.

유류비, 식비 등 건설분야 관련 자영업자 등에 대한 대금 체불 여부도 함께 점검한다.

대금 지급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다.

체불금은 추석 전까지 지급될 수 있도록 하고 지급 여부를 명절 전까지 계속해서 확인할 계획이다.

/ 강중수 기자



결그룹 뉴진스가 15일 오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서울패션위크 오프닝쇼 포토월 행사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서울패션위크 개막...5~9일 30개 브랜드 패션쇼

'2024 S/S(봄/여름) 서울패션위크'가 이달 5~9일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다고 서울시가 3일 밝혔다. 올해 서울패션위크는 세계 4대 패션 위크(뉴욕·파리·밀라노·런던)보다 먼저 다음 시즌의 패션 경향을 선보이며 해외 큰손 바이어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개최 시기를 한 달 앞당겼다.

5일간 총 30개 브랜드에서 런웨이(패션쇼)를 펼친다. 국내 정상급 디자이너 브랜드 21곳,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 8곳, 기업 브랜드 1곳이 참여한다.

개막 첫날에는 서울패션위크 글로벌 홍보대사 '뉴진스'가 공식 포토콜에 선다.

현대백화점과 협업해 패션과 미술을 접목한 특별한 런웨이(9개 쇼)도 준비됐다. 런웨이는 현장 라이브로 이뤄지며 서울패션위크 공식 유튜브를 통해서도 볼 수 있다.

국내 최대 규모로 열리는 패션산업 분야 트레이드 쇼에는 국내 패션기업 94개사와 27개국 127명의 해외 바이어, 국내

패션 관련 유통·투자사 등이 참여한다.

꾸준히 서울패션위크를 찾은 프랑스 프랑탕 백화점, 미국 편집숍 브랜드 3NY는 물론, 이탈리아 명품 편집숍 브랜드 에탈도, 영국 리버티런던 백화점, 프랑스 봉마르세 백화점, 일본 이세탄 백화점이 이번에도 처음으로 참여한다.

마지막 날인 9월9일 오전 10시~오후 6시 일반인 입장이 가능하고 트레이드쇼에 참여한 디자이너 브랜드의 제품을 현장에서 직접 구매할 수 있다. 패션업계 관계자는 물론 시민과 국내외 관광객도 함께 즐기는 참여형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DDP 야외 어울림광장에서 인공지능 홀로그램 화보 촬영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간수문 전시장에서 국내 유명 패션 브랜드 '앤더슨 벨'과 우루과이 사진작가 제이피 보니노의 기획전 'ADS X JP Bonino'가 열린다.

서울패션위크, 트레이드쇼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민영선 기자

대용량비빔밥·3단 샌드위치...CU, 대학가 겨냥 간편식 24종 출시



편의점 CU는 대학가 개강 시즌을 맞아 도시락, 김밥, 삼각김밥, 샌드위치를 위주로 총 24종의 간편식 제품을 선보인다고 3일 밝혔다.

이 가운데 이번에 새로 출시되는 제품은 17종이다.

최근의 먹거리 대형화 추세에 맞춘 자이언트 간편식도 7종 포함됐다. 지름 28cm의 대형 용기에 8가지 나물과 달걀 부침 2장을 더한 자이언트 양푼 비빔밥과 업계 최초의 3단 샌드위치가 대표 상품이다.

CU는 9월 한 달간 행사카드로 결제

시 30% 할인 혜택을 준다.

CU 관계자는 "최근 지속되는 고물가 현상으로 부담을 느끼는 대학생들을 위해 가성비를 높인 대표 간편식 브랜드의 신상품을 다양하게 준비했다"고 말했다.

대학 개강 시즌인 9월에는 통상 대학가에 위치한 편의점의 도시락 매출이 크게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지난해 9월 CU의 입지별 도시락 매출을 보면 대학가 전월 대비 72.7% 올라 20여개 입지 중 상승 폭이 가장 컸다. 윌렛(26.2% ↑), 오피스(23.3% ↑), 리조트(21.1% ↑), 빌라·오피스텔(15.8% ↑)과 비교적 큰 격차를 보였다.

/ 김강우 기자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 "속도 떨어지더라도 인내하며 정도경영"

창립 22주년 기념 임직원 '토크 콘서트' 열어...절감한 비용으로 기부

신한금융지주는 지난 1일 서울 중구 본사에서 진옥동 회장을 비롯한 계열사 최고경영자(CEO)와 지주사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22주년 기념 '참신한 토크 콘서트'를 열었다고 3일 밝혔다.

기존 창립기념 행사를 임직원 간 소통의 자리로 대체하면서 절감한 비용은 노숙인 요양시설 '서울특별시립 은평의마을'에 대형 승합차를 기부하는 데 쓰였다.

진 회장은 콘서트에서 직원들의 다양한 질문에 진솔하게 답하며 경영철학을 공유했다.

그는 정도 경영에 대해 "정도 경영에는 인내가 필요하다"며 "실적을 내기 위해 초조해하지 않고 바른길을 가고 있다는 신념을 바탕으로 인내의 시간을 견뎌내면 비록 속도가 조금 떨어지더라도 정도를 갈 수 있다"고 밝혔다.



신한금융지주회사는 1일 서울 중구 본사에서 진옥동 회장을 비롯한 계열사 최고경영자(CEO)와 지주사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22주년 기념 '참신한 토크 콘서트'를 열었다. 행사에 참석한 신한금융 진옥동 회장(왼쪽 첫 번째).

20·30대 젊은 직원의 인재상 관련 질문에는 "창업 초기에는 도전 정신이 넘치는 직원이 많이 필요했다"며 "하지만 성장의 시대를 거쳐 성숙의 시대로 가는 현재 신한금융에는 금융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신

뢰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프로의식을 갖춘 직원이 필요하다. 공감 능력을 바탕으로 혁신적 사고를 할 수 있는 인재가 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 정성호 기자

KT, 20대 5G 요금제 고객 대상 지인 결합상품 출시



Y끼리 무선결합

만 19~29세 5G 요금제 가입자 'Y담' 고객이면 최대 5명까지 결합할 수 있으며, 24개월 동안 1인당 월 최대 1만1천 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별도 증빙서류 제출 없이 나이와 요금제만 확인되면 바로 가입할 수 있다.

앞서 KT는 6월 만 29세 이하 5세대 이동통신(5G) 요금제 이용자에게 데이터를 2배로 제공하는 'Y담' 혜택을 선보이는 등 20대 고객 통신비 절감에 나서고 있다.

아울러 기기 패밀리 인터넷과 모바일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1인 전용 결합상품 '프리미엄 싱글결합'도 운영하고 있다.

구강본 KT 커스터머사업본부장(상무)은 "결합 사각지대에 있던 청년 고객들이 실질적인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앞으로도 청년 고객의 통신비 부담을 줄일 방안을 꾸준히 찾겠다"고 말했다.

/ 백도영 기자

KT는 20대 5세대 이동통신(5G) 요금제 이용자를 대상으로 지인 결합 상품 'Y끼리 무선결합'을 선보인다고 1일 밝혔다.

SAMSUNG

Galaxy Z Fold5



samsung.com

World EXPO 2030 BUSAN, KOREA

부동산거래법률의 유지를 응원합니다

'운동하기 좋은 가을' 서울 곳곳서 생활체육 행사



'서울달리기' 참가자들

운동하기 좋은 계절 가을을 맞아 서울 시내 곳곳에서 생활체육 대회와 프로그램이 열린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10월8일 '2023 서울달리기'가 개최된다. 1만1천여명의 시민이 참가하는 서울달리기는 서울광장을 출발해 광화문광장~청와대~청계천~동

대문디자인플라자(DDP) 일대를 달리는 하프코스과 11km 코스로 운영된다.

'서울 국제올림픽트레일러닝 대회(서울 100K)'는 10월 21~22일 열린다. 인왕산, 북한산, 서울 둘레길, 한강 등 서울의 자연·역사·문화 명소를 만끽할 수 있는 코스로 준비됐다. 입문자를 위한 10K 부

문도 신설됐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2023 JTBC 서울마라톤'은 11월5일 열린다. 상암월드컵공원부터 잠실운동장 학생체육관 앞 도로까지 서울을 가로지르는 코스로 풀코스(비장애인)·하프코스(휠체어)·10km(비장애인) 부문이 있다.

서울광장은 '운동하는 광장'으로 바뀐다. 10월 5일과 19일, 26일 오후 7시30분 바래, 줌바 등을 즐길 수 있다.

9~11월 마지막 중 화요일에는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스포츠 축제 '광화문 운동회'가 펼쳐진다. 낮 12시~오후 6시에는 전통놀이 체험부스를 열고 오후 7~9시에는 디스코댄스(9월), 태권체조(10월), 치어리딩(11월) 공연·체험을 한다.

세종문화회관 오픈스테이지에서는 9월 11일~11월27일 케이팝 댄스, 리듬체조, 댄스스포츠 등을 배울 수 있는 '스포츠 인(in) 아트스테이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광화문광장과 여의도한강공원에서 매주 목요일 오후 7~9시 전문 달리기 코치와 함께하는 '7979 서울 러닝크루'가 도심을 달린다.

특심유원지역 2번 출구에서는 9월1일~10월 6일(추석 연휴 제외) 매주 금요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찾아가는 체육관'을 연다. 뉴스포츠 2급 지도자의 지도와 함께 8가지 종목을 무료로 체험해볼 수 있다. 망원수상훈련장에서는 수상레저리그 요트리그(일반리그, 입문자리그)를 9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한다.

잠실한강공원과 수중보 일원에서는 '2023 한강 르네상스 페스티벌 아쿠아슬론 대회'가 10월 7~8일 개최된다.

이외 생활체육 행사·프로그램 안내와 모집 정보는 '핫핫핫서울' 블로그·인스타그램, 서울시 생활체육포털(sports.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송진영 기자



오염수 방류 우려했는데 부산 전어축제 사흘간 흥행 성공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후 열린 부산 명지시장 전어축제에 예상보다 많은 관광객이 몰리면서 행사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부산 강서구는 지난달 29일부터 31일까지 열린 제21회 명지시장 전어축제에 약 3만명의 관광객이 방문했다고 1일 밝혔다. 당초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지난 24일부터 시작되면서 축제에 영향을 미칠까 우려했지만, 예상보다 더 많은 관광객이 몰렸다.

강서구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인 1만 5천여명이 이번 축제 행사장을 방문할 것으로 내다봤다.

강서구 관계자는 "오염수 방류로 인해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제철 맞은 전어를 먹기 위해 축제장을 방문한 구민과 관광객들로 축제장이 북새통을 이뤘다"고 말했다.

축제 기간 소진된 전어 역시 예상치를 웃돌았다.

사흘 동안 소비된 전어는 20t가량이며,

축제 마지막 날에는 하루 동안 10t이 소진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매출도 예년과 비교해 30% 이상 증가했다고 명지시장 상인회는 밝혔다.

명지시장 상인회 관계자는 "보통 오후 9시 이후에도 장사하는데 이번에는 전어가 워낙 잘 팔려 오후 7시에 조기 마감을 하는 점포도 꽤 많았다"며 당시 분위기를 전했다. 이어 "오염수 방류로 인해 안정성 우려도 있었지만, 부산시와 협업해 방사능 검사를 마친 뒤 안전하다고 홍보한 덕분에 많은 시민이 찾은 것 같다"고 말했다.

상인회는 오는 주말까지도 다양한 전어 요리를 준비해 축제 분위기를 이어 나갈 예정이다.

명지시장 상인회 관계자는 "전어를 맛본 관광객들 모두가 그 어느 때보다 전어 맛이 좋았다고 입을 모았다"며 "아직 전어를 맛보지 못한 사람은 이번 주말 시장을 꼭 방문해 전어의 쫄깃하고 고소한 맛을 즐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 이희성 기자

경기도, 지하철도 302개 전수조사 이달 마무리...안전시설 확충

'침수위험 지하철도 통제 및 등급화 기준' 개선도 중앙정부에 건의

경기도는 이달 말까지 도내 전체 302개 지하철도를 대상으로 침수 발생 가능성, 안전시설 현황 등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도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시군 신청을 받아 2026년까지 수위계(침수 알람장치), 자동차단 시설, CCTV, 경보시설, 전광판 등을 연차적으로 설치해 지하철도 안전 시스템을 완벽할 방침이다.

사업이 마무리되면 수위계 등 각종 센서와 CCTV를 통해 침수 상황을 자동 감시하고, 위기 징후 감지 시 자동 또는 원격으로 차량의 진·출입을 차단할 수 있게 된다.

도는 한정된 국비와 시군 예산만으로



수원시 설치 예정인 핸드레일·사다리는 지하철도 안전시설 개선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고 경기도재난관리기금을 적극 투입할 방침이다.

모든 안전시설을 구비하는데 지하철도

해수차관, 제주서 수산물 안전관리 점검...“검사장비 확대”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이 2일 오전 제주도 한림수협 위판장을 둘러보며 판매 동향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2일 "국민이 안심하고 우리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이날 오전 제주도 한림수협 위판장을 찾아 수산물 위판 현황을 살피고

방사능 검사 절차를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양기호 한림수협 조합장은 "방사능 검사를 하러 1시간 거리를 가야 하는 실정으로, 전날 저녁 시료를 채취 해서 검사를 맡겨 다음날 오전 3시에 결

과를 통보받는다. 그렇지 않으면 판매가 이뤄질 수 없는 상황"이라며 조속한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박 차관은 "방사능 측정 장비를 늘리기 위해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약 2.5배 늘려 반영했다"며 "검사 장비를 기존 38대에서 72대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안전성을 직접 확인해 안심하고 우리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방사능 측정 장비를 신속히 늘리는 등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이어 제주도 애월읍 남치 양식장을 방문해 제주도 양식업 현황과 안전 관리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이어 출하를 앞둔 남치 중 일부를 방사능 검사 용 시료로 채취하는 과정을 참관했다.

/ 이형민 기자

외국인 가사관리사 이르면 12월 시범도입...서울시에 100명 규모

이르면 올해 12월부터 가사와 육아를 돕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100명이 서울시에 시범 도입된다.

정부는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제39차 외국인력정책위 및 제2차 외국인력 통합관리 추진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이 같은 계획을 확정했다.

외국인 가사관리사는 비전문 외국인 체류자격인 'E-9' 비자를 이용해 시범 도입된다. 시범사업은 심층 모니터링을 위해 소규모인 100명으로, 서울에서 먼저 시작한다. 20~40대 맞벌이 부부, 한부모가정, 다자녀가정 등이 우선 이용 대상이다.

가사관리사는 만 24세 이상 외국인 중 경력·지식과 어학

능력을 평가하고 범죄 이력 등 신원 검증, 마약류 검사 등을 실시한 뒤 선정할 예정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고용노동부와 서울시의 공동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가사관리사 자격과 서비스 품질을 관리하고,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인력 공급·관리·운영을 진행하겠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대다수 가정이 주 1~3회, 1회 4~6시간의 파트타임 가사관리사 이용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외국인 가사관리사도 원하는 시간에 파트타임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 신지호 기자

지금 사고 나눠내자!

온라인 최저가보다 최대 72% 저렴하게!

월 6,900원

월 13,500원

월 15,900원

월 900원

월 15,900원

새로운 가전 구매 트렌드

LG헬로비전 헬로렌탈

상담문의 1855-1082

※ 최저가 비교기준 : 22년 3월 N사 쇼핑 기준, 삼성TV(KU50UA7050FXKR), KB체크카드 전용 30만원 사용에 따른 할인 적용 시 ※ 월 렌탈료는 품목 및 할부 기간에 따라 상이

경기도, 화성 개 사육장서 1천400마리 구조



구조된 개들을 바라보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경기도가 동물보호단체와 함께 화성시 공간)로 이송하고 있다"며 "경기 반려마루는 아직 정식 개관 전이지만 가용한 모든 자원을 투입해 소중한 생명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끔찍한 현장에서 구조된 개들을 경기 반려마루(반려동물 복합문화사단법인 동물구조단체 위액트)의 SNS 제

보를 받고 긴급 지시를 내려 진행됐다. 도 특별사법경찰단과 축산동물복지국 관계자들이 현장에 나가 위험 상황을 확인하고 생존 개들을 확보했다.

해당 번식장은 지자체 신고를 거친 시설이지만 학대 등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허가 조건보다 1천마리나 많은 개가 좁은 공간에 방치돼 있었고, 냉동고에는 신문지에 쌓인 개 사체가 100구 가까이 발견됐다.

도는 번식장 소유주에게 개 소유권 포기 의사를 얻어내는 한편 해당 사업장에 대해 영업정지 등 행정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김 지사는 "대한민국의 동물 복지 수준을 이제 한단계 더 높여야 한다"며 "변화의 중심 경기도가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박현욱 기자

중국발 크루즈 4년만에 인천 기항 추진...유치활동 본격화

올해 10~11월 3척 기항 추진...중국 항만당국과 협력 강화

중국인의 한국행 단체관광이 재개되면서 올해 인천항에도 중국발 크루즈가 잇따라 기항할 것으로 전망된다.

3일 인천항만공사(IPA)에 따르면 중국 크루즈 선사 2곳은 오는 10~11월 인천에 크루즈 3척을 기항하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다.

선사들은 중국 텐진이나 산둥성 칭다오에서 출발해 인천과 제주 등지를 거치는 항로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10월 인천 기항이 계획대로 성사되면 중국발 크루즈는 2019년 11월 이후 약 4년 만에 다시 인천에 오게 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3년 넘게 중단됐던 인천항 크루즈 운항은 올해 3월 재개돼 이미 7척이 인천에 기항했으나, 한중 관계 악화 등으로 인해 모두 중국을 거치지 않았다.

최근 중국 정부가 한국행 단체관광을 허용한 뒤에도 제주도에만 크루즈 기항 예약이 몰렸다. 올해 제주에는 중국발 크루즈가 47차례 기항할 예정



지난 3월 인천 내항에 입항한 크루즈

이다. IPA는 국내 최대 규모인 인천항 크루즈 전용 터미널과 항공 연계 상품(플라이&크루즈) 등을 앞세워 크루즈를 인천에 유치할 방침이다.

IPA는 최근 중국 칭다오에서 열린 '중국 국제크루즈서밋'에 참가해 선사와 여행사를 대상으로 홍보 활동을 펼치기도 했다.

다음 달에는 텐진항을 관리하는 국영기업인 텐진항무그룹의 부총재를 초

청해 인천항의 강점을 설명하고 11월에는 칭다오항을 관리하는 산둥성 항무그룹과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IPA 관계자는 "중국 상하이에서 출발하는 크루즈가 많다 보니 선사들이 지리적으로 가까운 제주도를 주된 기항지로 택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인천과 거리가 가까운 북중국 도시들을 위주로 마케팅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김현중 기자

충북교육청 인공지능 윤리교재 제작...초중고에 배포

충북교육청은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여건 조성을 위해 인공지능 윤리 교재를 제작해 초·중·고 등 도내 모든 학교에 배포했다고 3일 밝혔다.

이 교재는 학생들이 인공지능 기술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등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시대를 살아갈 시민으로 갖춰야 할 윤리역량 함양을 목표로 개발됐다.

정부가 발표한 인간존엄성 등 3대 원칙과 인권보장, 프라이버시 보호 등의 10대 요건을 토대로 만들었다. 또 내년부터 도입되는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디지털 소양교육을 중심으로 만들었다.

초등학교 교재는 현행 교과와 연계해 놀이, 중학교 교재는 체험활동, 고등학교 교재는 개념 위주 학습 뒤 기초·심화탐구가



가능하도록 구성했다. 이 교재와 관련된 수업자료는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탑재해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했다.

/ 황유진 기자

"우주항공청 특별법 조속히 의결하라"...경남도민 쫓기대회

박완수 지사 "특별법 심의 미뤄지면 330만 도민 좌시 않을 것"



"우주항공청 특별법 조속 통과" 촉구 쫓기대회

경남도민들이 국회의 거둬들인 과행으로 진통을 겪는 우주항공청 설립 특별법의 통과를 촉구하는 대규모 쫓기대회를 열었다. 경남지역 산업계·학계·비영리 민간단체 등 38개 단체·협회 등이 연대해 발족한 '우주항공청 설치 범도민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3일 사전 삼천포대교 공원에서 '우주항공청 특별법 통과 촉구'를 위한 범도민 쫓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쫓기대회에는 박완수 경남지사를 비롯해 김진부 경남도의회 의장, 최효석 재경 경남도민회장, 권순일 경상국립대 총장 등 추진위 공동위원장과 최형두 국민의힘 경남도당위원장, 하영제 국회의원, 박동식 사천시장, 조규일 진주시장 등 도내 기관단체장과 지방의원, 추진위 소속 학계와 산업계·시민단체 등에서 5천여명이 참가했다.

추진위는 이날 대회에서 지난 4월 제출

된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조속하게 통과시키라고 국회에 촉구했다. 이어 우주항공청 설립과 관련한 경과보고 영상 상영에 이어 '국가의 미래 성장 동력이자 초일류 국가로 도약을 위한 초석인 우주항공청을 설치할 수 있는 특별법을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시켜 달라'는 건의문 낭독과 구호 제창 등을 하며 우주항공청 설치 염원을 표출했다.

박완수 지사는 "국가 우주경제 비전의 실현을 위해서는 우주산업 중심은 반드시 경남이어야 하고, 우주항공청이 사전에 조속히 설치돼야 한다"며 "일부 공공기관이나 정치인의 집단이기주의적 반대는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이어 "이 시간 이후 우주항공청 설치를 반대하는 집단은 국가발전의 가로막는 세력이며, 역사의 죄인"이라며 "여야가 추선 전 특별법 심의를 한다"고 하는데, 더

이상 미뤄진다면 330만 경남도민이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진부 의장은 "우주항공청 사전 설치와 특별법 조속 제정은 경남도민의 염원이며 도의회가 특별법 국회 통과를 위해 필요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효석 재경경남도민회 회장은 "우주항공청 설치가 지연되고 있는 현 상황을 더는 지켜볼 수 없어 추진위원회를 발족하게 됐다"며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할 때까지 경남 출신 항우들이 적극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22일 발족한 추진위는 같은달 30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 앞에서 우주항공청 특별법 조속 통과 촉구 집회를 열고 "우주항공청을 정쟁과 타협의 대상으로 삼지 말라"며 촉구한 뒤 우주항공청 설치 특별법 통과 촉구 건의문을 민주당에 전달한 바 있다.

/ 권도훈 기자

제주 '천원의 아침밥' 본격 시행...도내 3개 대학 대상

제주지역 대학가에서도 학생 아침 식사를 1천원에 제공하는 '천원의 아침밥' 지원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제주도는 지난 6월부터 제주대학교에서 시범 운영해온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오는 2학기부터 제주한라대와 제주관광대까지 3개 대학에서 본격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천원의 아침밥은 농림식품부가 2017년부터 대학생 건강 증진과 쌀 소비 촉진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제주지역 대학의 경우 재정 여건이 어려워 참여가 저조했지만, 도가 재정 보조에 나서면서 지난 4월 제주대와 제주한라대, 제주관광대 3개교가 사업 대상으로 추가 선정됐다.

도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 추진을 위해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으로 사업비 1억5000만원을 확보해 대학생 아침 식사 1끼당 2천원을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1천원, 각 대학은 500~1천원을 지원하면서 대학생은 1천원만 부담하면 아침 식사를 할 수 있게 됐다.

천원의 아침밥 운영시간은 대학 식당 여건에 따라 다르다.

제주도 관계자는 "대학생들이 경제적으로 큰 부담 없이 아침밥을 챙겨 먹으면서 학업과 취업 준비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황민욱 기자

저탄소 친환경 기업 사람중심 가치창출 기업 투명하고 신뢰받는 기업 ESG 경영 선도 기업

Action for Positive Change

새로운 경험과 가치를 연결하는 혁신적인 금융투자 파트너

교보증권이 함께합니다

2021 한국거래소 코넥스시장 우수IB 선정 2022 KRCA 최초발간부문 우수상 수상 2023 KJ제로인 대한민국 펀드어워즈 투자자보호 부문 1위

교보증권은 변화하는 세상에서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로 고객가치를 향상시키고 보다 더 나은 미래를 만듭니다.

도전과 창의 고객중심 정직과 성실

※ 투자자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증권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금융투자상품은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주식거래 시 온라인 매매 수수료는 0.1492%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 23호-02637호(2023.07.24 ~ 2026.07.23)

KYOBŌ 교보증권

해트트릭으로 침묵 깬 '캡틴' 손흥민 "모범이 되려 노력한다"

시즌 1~3호 골을 한꺼번에 넣으며 새로운 시즌 득점 사냥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손흥민(토트넘)은 팀의 주장다운 남다른 책임감을 보였다.

손흥민은 2일(현지시간) 영국 버리의 터프 무어에서 열린 2023-2024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4라운드 버리와와 원정 경기를 마치고 현지 인터뷰에서 "버리 원정은 항상 어렵다. 우리는 밀리며 시작했지만, 강하게 반격했다"고 돌아봤다.

이 경기에서 손흥민은 전반 16분과 후반 18분, 21분 득점포를 가동하며 팀의 5-2 대승과 리그 4경기 무패(3승 1무) 행진에 앞장섰다.

이번 시즌 토트넘의 주장을 맡은 손흥민의 시즌 1~3호 골이었다.

기준에 선발 최전방 공격수로 기회를 얻던 하샤트리송이 부진하며 벤치로 밀려난 가운데 이날 최전방에 선발 출격한 손



버리와와의 경기 마치고 동료들과 자축하는 손흥민

흥민은 득점력을 마음껏 발휘했다.

"3골 중 어느 하나를 고르기도 어렵다"고 밝힌 손흥민은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승점 3을 얻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가 주장이지만, 주변에 훌륭한 선수들이 많다. 그들이 나를 많이 도와준

다"며 동료들에게 공을 돌렸다. 이어 "내 역할은 아주 쉽다. 모범이 되려고 노력하고, 미소 지으려 하며, 경기장 안팎에서 책임감을 가지려 한다"고 강조했다.

주중 리그컵(카라바오컵) 2라운드에서 풀럼에 멀티를 잡혀 앞선 리그 3경기 무

패 상승세가 잠시 끊겼던 토트넘은 주장이 이끈 대승 덕에 분위기가 한껏 고무됐다.

손흥민은 "우리는 더 앞으로 나아가고 싶고, 여전히 더 나아지기를 원한다"고 힘줘 말했다. 손흥민은 경기 후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도 해트트릭을 기념하는 세 손가락을 펼쳐 보이는 사진 등을 올리며 자축했다. 인스타그램 글에서 그는 "어려운 경기장에서 선수들이 보여준 놀라운 경기력이 자랑스럽다. 좋은 분위기에서 A매치 휴식기를 맞이한다"면서 팬들의 성원에 고마움을 전했다.

구단 계정에 올라온 영상에서도 손흥민은 "힘든 원정이었지만, 여러분의 응원을 느낄 수 있었다. 승점 3을 따내 기쁘고, 해트트릭을 작성한 것도 특별한 일"이라며 재차 감사한 마음을 표현했다.

/ 박민성 기자

오타니에게 희망 주는 류현진 두 번째 팔꿈치 수술 '모범 사례'



토론토 블루제이스 류현진

'코리아 몬스터' 류현진(토론토 블루제이스)이 생애 두 번째 팔꿈치 인대 접합 수술(토미 존 서저리)을 고된 중인 '슈퍼스타' 오타니 쇼헤이(로스앤젤레스 에인절스)에게 희망을 주는 분위기다.

미국 매체들은 지난 달 오른쪽 팔꿈치를 다친 오타니의 수술 전망 관련 기사를 쏟아내면서 두 차례 팔꿈치 수술을 받고도 예전의 기량을 되찾고 맹위를 떨치는 류현진을 모범 사례로 소개했다.

AP통신은 3일(한국시간) 오타니 부상과 관련한 분석 기사에서 현지 전문 의료진 코멘트를 인용해 "두 번째 토미 존 서저리는 첫 번째 수술보다 복잡하고 회복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며 "다만 두 번째 수술 성공 가능성은 과거 50%에서 현재 60~70% 수준으로 올라온 수준"이라고 소개했다. 이 매체는 생애 두 차례 팔꿈치 인대 접합 수술을 받고도 성공적으로 복귀한 투수들을 나열하기도 했다.

AP는 "네이션 이발디(텍사스 레인저스)와 제이미슨 타이온(시카고 컵스)이 가장 눈에 띈다"라며 "류현진은 지난 달 복귀했다"고 전했다.

이발디는 고교 1학년 때 팔꿈치 인대 접합 수술을 받았고, 2016년 같은 수술을 다시 받았다. 그는 2019년에도 팔꿈치 유리체 제거 수술을 받는 등 세 차례나 같은 부위에 칼을 든 뒤 재기에 성공했다.

올 시즌엔 11승 3패 평균자책점 2.69의 정상급 성적을 내고 있다.

타이온도 2019년과 2020년 팔꿈치 수술을 받았지만, 2021년 8승 6패 평균자책점 4.30, 2022년 14승 5패 평균자책점 3.91로 활약했다.

류현진은 두 차례 팔꿈치 인대 접합 수술을 받고 성공적으로 복귀한 사례다.

그는 동산고 2학년이던 2004년 첫 번째, 2022년 6월 19일 두 번째 토미 존 서저리를 받았다. / 윤주환 기자

박보균 "강원 청소년올림픽, 잼버리 같은 아쉬움 없게 하겠다"

강원도 "평창동계올림픽 개최 저력·경험 바탕으로 준비 착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3일 2024 강원 동계 청소년올림픽대회 현장 점검을 위해 강릉 컬링센터 방문. 텀킥 및 조직위 관계자 등과 대회의 성공개최를 다짐하고 있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3일 "2024 강원 동계 청소년올림픽대회는 새만금 잼버리 대회 초기의 아쉬움과 답답함이 재현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강릉 올림픽파크 내 컬링센터 등을 방문, 청소년올림픽대회의 현장 점검을 한 자리에서 "문화체육관광부는 강원도와 함께 청소년올림픽을 가장

멋지고 감동적으로 전 세계에 각인시키는 대회를 만들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오늘 현장에 와보니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검증된 시설을 업그레이드하고 정비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어 믿음이 간다"며 "청소년올림픽은 감동적이고 매력적으로 펼쳐지는 대회가

될 것"이라고 다시한번 강조했다.

그는 이어 "강원도는 1991년 고성 잼버리대회,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성공 개최의 DNA와 경험, 전통과 열정을 축적하고 있는 곳"이라며 "청소년올림픽 대회는 세계 스포츠 제전에 새로운 패러다임이 열리는 대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하지만 청소년올림픽대회의 완성을 위해 마지막까지 준비에 만전을 기해서 미래 세대와 함께 성공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2024 강원 동계 청소년올림픽대회가 네 달여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주요 경기장 시설을 직접 확인하고, 대회 상황을 점검하고자 마련됐다.

점검에는 정광열 강원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와 진종오 조직위원회 위원장, 컬링의 텀킥, 발레리나 김주원, 스노보드 해설위원 박재민 등이 함께 했다.

이날 강원특별자치도는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 원활한 대회 운영 지원

▲ 완벽한 경기장 조성 투 트랙으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는 원활한 대회 운영 지원을 위해 행정지원본부를 구성, 분야별로 대회 준비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최근 이슈가 된 국제 대회 준비 부족 등의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조직위원회, 개최도시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준비 상황을 꼼꼼하게 챙겨나가기로 했다.

박 장관은 "하지만 청소년올림픽대회의 완성을 위해 마지막까지 준비에 만전을 기해서 미래 세대와 함께 성공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2024 강원 동계 청소년올림픽대회가 네 달여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주요 경기장 시설을 직접 확인하고, 대회 상황을 점검하고자 마련됐다.

점검에는 정광열 강원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와 진종오 조직위원회 위원장, 컬링의 텀킥, 발레리나 김주원, 스노보드 해설위원 박재민 등이 함께 했다.

이날 강원특별자치도는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 원활한 대회 운영 지원

▲ 완벽한 경기장 조성 투 트랙으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 최준용 기자

여고생 홍효림, 태권도 그랑프리 동메달

태권도 대표팀의 유일한 고교생인 홍효림(강원체고)이 그랑프리 시리즈에서 값진 동메달을 수확했다.

홍효림은 3일(한국시간) 프랑스 파리 근교 르발르와 페레에서 열린 파리 2023 세계태권도연맹(WT) 그랑프리 2차 대회 여자 67kg급에서 3위에 올랐다.

그는 16강전에서 만난 사라 사리(벨기에)를 라운드 점수 2-1(3-6, 5-5, 8-7)로 꺾는 파란을 일으켰다. 사리는 지난해 세계선수권대회 여자 62kg급과 세계주니어 선수권대회 63kg급 금메달을 차지한 이번 대회 우승 후보였다.

난적을 꺾은 홍효림은 8강에서 만난 페트라 스톨보바(체코)도 라운드 점수 2-1(10-4, 1-6, 1-1)로 누르고 준결승에



경기 펼치는 홍효림(왼쪽)

진출했다. 결승 진출은 어렵게 실패했다. 중국 명위장에게 라운드 점수 0-2(2-9, 2-2)로 패했다.

홍효림은 1회전을 큰 점수 차로 내렸고, 2회전에서 원발 돌려차기로 선취점을 얻고도 동점을 허용한 뒤 유효타에서 뒤져 우세패로 졌다. / 신정균 기자

1미 모리국수

2미 해신탕

3미 영일대 조개구이

4미 등푸른막회

5미 라메기

6미 구룡포대게

7미 포항초비빔밥

8미 소머리곰탕

9미 물회

10미 아구탕

포항 10미

포항의 맛

poohang

음레협, 피프티 사태 비판 “데뷔 직후 정산 문제 삼는 건 착오”

“이 건으로 해외 K팝 위상 꺾일 수도...명명백백 밝혀져야”

‘중소돌의 기적’으로 불린 걸그룹 피프티 피프티를 둘러싼 전속계약 분쟁에 대해 윤동환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회장이 “데뷔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정산을 문제 삼는 것은 착오”라고 멤버 측에 비판적인 소신을 밝혔다.

윤 회장은 지난 1일 유튜브 채널 연투 유TV에서 이번 사태와 관련해 “처음에는 무조건 적자로 시작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투자·손해·이익이 반복되다 보면 흑자가 발생하는 시점이 올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피프티 피프티 측이 문제 삼은 ‘음반·음원 선금금 투자’ 이수를 짚었다.

윤 회장은 “음반·음원 선금금 투자는 매달 발생하는 음반·음원 수익을 상계 처리하는 구조”라며 “어느 정도 수익이 보



피프티 피프티

장된 스타는 아티스트를 대상으로 투자가 되기에 개인적으로 고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신인의 경우 선금금 투자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중소돌의 기적’으로 불린 걸그룹 피프티 피프티를 둘러싼 전속계약 분쟁에 대해 윤동환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회장이 “데뷔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정산을 문

제 삼는 것은 착오”라고 멤버 측에 비판적인 소신을 밝혔다.

윤 회장은 지난 1일 유튜브 채널 연투 유TV에서 이번 사태와 관련해 “처음에는 무조건 적자로 시작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투자·손해·이익이 반복되다 보면 흑자가 발생하는 시점이 올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피프티 피프티 측이 문제 삼은 ‘음반·음원 선금금 투자’ 이수를 짚었다. 윤 회장은 “음반·음원 선금금 투자는 매달 발생하는 음반·음원 수익을 상계 처리하는 구조”라며 “어느 정도 수익이 보장된 스타는 아티스트를 대상으로 투자가 되기에 개인적으로 고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신인의 경우 선금금 투자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은희 기자



유해진·김희선 로코 ‘달짝지근해’ 100만 관객 돌파

유해진·김희선 주연의 로맨틱 코미디 ‘달짝지근해: 7510’이 대작들 틈에서 100만 관객 돌파에 성공하며 극작가 다크호스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2일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이 영화는 개봉 19일째인 이날 오전 누적 관객 수 100만명을 넘겼다. ‘달짝지근해’는 전날 2만6천여 명의 관객을 모아 일일 박스오피스 4위에 올랐다.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오픈하이머’와 최근 개봉한 신혜선 주연 스릴러 ‘타겟’, 엄태화 감독의 재난 영화 ‘콘크리트 유토피아’의 뒤를 이었다. ‘달짝지근해’는

한국 여름 대작 영화 4편이 개봉한 이후 ‘오픈하이머’와 같은 날 극장에 걸렸다. 정우성이 주연과 연출을 맡은 액션 영화 ‘보호자’도 동시에 개봉했다.

쟁쟁한 경쟁작이 많았던 만큼 ‘달짝지근해’의 흥행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타겟’이 개봉한 지난달 30일 전까지 박스오피스 3위를 지키며 꾸준한 관객을 모았다. 이한 감독이 연출한 ‘달짝지근해’는 순진한 제과 회사 연구원 치호(유해진 분)가 미혼모인 일영(김희선)과 첫사랑에 빠지며 겪는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황규현 기자

또 한 번 어긋나버린 인연 ‘연인’ 파트1 12.2%로 마무리



이장현은 이에 깊은 분노와 슬픔을 느끼고 모진 말을 쏟아낸다. 유길채 역시 몇 번이고 자신을 두고 훌쩍 떠나버린 이장현에게 원망의 감정을 쏟아낸다.

원망하지만, 여전히 서로를 깊이 사랑하는 둘은 격정에 휩싸여 함께 도망친다. 유길채는 혼인을 앞둔 채 가까워지다 두고 이장현을 따라나서지만, 결국 홀로 남은 아버지 생각에 마음이 흔들려 집으로 돌아간다.

그렇게 둘은 또다시 헤어지고, 드라마는 2년이 흐른 후 심양에서 조선 포로들을 구하는 이장현의 모습을 비춘다.

마지막 장면에서는 이장현과 파란 복면을 쓰고 있는 청나라 포로사냥꾼(이정민 분)과 유길채(안은진)는 마침내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다.

‘연인’은 역사적 기록을 재가공한 탄탄한 서사, 배우들의 호연, 사극의 고풍스러운 멋을 살린 감각적인 연출이 잘 어우러진 작품이라는 평을 받는다. /김희성 기자

애절함에 설렘을 더한 로맨스 사극 ‘연인’ 파트1이 자체 최고 시청률로 막을 내렸다. 3일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50분 방송된 MBC 금토드라마 ‘연인’ 파트1 최종회 시청률은 12.2%로 집계됐다.

전날 방송에서 참혹한 전쟁과 몇 번의 죽을 고비를 넘기고 마주한 이장현(남궁민 분)과 유길채(안은진)는 마침내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다.

청나라 심양으로 떠났다가 몇 년 만에 조선으로 돌아온 이장현은 유길채에게 줄 꽃신을 가득 실어 오지만, 이장현이 죽은 줄로만 알았던 유길채는 구원무(지승현)과 혼인을 앞두고 있었다. /김희성 기자

아시안게임 해설 나선 ‘배구 황제’ 김연경 “어록 만들 것”



이 호흡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 해설위원을 맡게 됐다”고 밝혔다.

2006년부터 15년간 한국 배구를 대표하는 선수로서 2012 런던올림픽, 2020 도쿄올림픽에서 대표팀의 4강을 이끈 김연경은 “아직은 현역 선수로서 말 한마디 한마디가 조심스럽다”고 씩 웃어 보였다.

그는 “주변에서 기대가 많은 것 같아서 잘해야 할 것 같다”며 “주변에 조언을 구해 어록을 만드는 데 도전해 보겠다. 해설위원 유니폼이 아직 어색하지만, 편하고 쉬운 해설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저는 아시안게임 금·은·동메달을 모두 갖고 있어요. 현장에서 그 경험을 선수들에게 전해주고 싶습니다.”

올해 한국 남녀배구팀 선수들을 위한 응원의 메시지도 잊지 않았다.

김연경은 “지금 남녀 배구가 쉽지 않은 상황임에도 모두 아시안 게임을 앞두고 준비를 잘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형찬 기자

“시청자분들께서 편하게 들을 수 있어야 하니까 지나치게 직설적인 얘기는 웬만하면 안 하려고 합니다. 근데 할 수 있을지 걱정이네요. (웃음)”

오는 23일부터 시작되는 제19회 항저우 아시안게임 해설을 위해 내로라하는 해설진이 KBS로 모였다.

1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KBS 항저우 아시안게임’ 제작발표회는 전 야구 선수 박찬호, 박용택, 전 축구선수 이영표, 배구선수 김연경, 전 농구선수 양동근, 골프선수 최나연 등이 참석했다.

처음으로 해설위원에 도전하는 김연경은 “대표팀 어드바이저(고문)로 경기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다 보니 같

트와이스 유닛 미사모, 일본 도쿄서 팝업 전시

걸그룹 트와이스의 미나·사나·모모로 구성된 유닛(소그룹) 미사모(MISAMO)가 오는 3일까지 일본 도쿄 시부야에서 팝업 갤러리 ‘마스터피스’를 진행한다

이 전시는 미사모가 지난달 26일 발표한 일본 데뷔 음반 ‘마스터피스’ 활동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선보이는 자리다. 갤러리는 ‘결자’와 ‘명화’ 컨셉트로 꾸며

졌다. 다양한 MD(굿즈 상품)는 물론 미공개 사진, 뮤직비디오 착용 의상, 친필 사인 포토존 등을 볼 수 있다. 박지영 JYP 대표 프로듀서가 미술관 내 작품 접촉을 경고하는 문구를 컨셉트로 멤버들을 미술 작품과 같은 존재로 표현해냈다. 미사모의 ‘마스터피스’는 발매 첫 주 15만5천장이 팔려 일본 오리콘 주간 앨범 랭킹 1위에 올랐다. /황규현 기자

검찰연합일보

www.unionilbo.com

회장·발행인 송원기 주 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여의도동) 국회본관 175
편집인 최두한 대표전화 1533-1545 / 팩스 : 0508-9192546
인쇄소 아이피디 E-mail unionilbo12@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서남영 등록번호 서울,아53015 서울,가50142

구독 광고 문의 : 1533-1545 / 구독료 : 월 15,000원, 1부 800원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ZOOM

들여다볼수록 매력이 솟아나는 영양나들이... 마음을 두고온 영양, 사진에 담아온 영양

영양 들머리보기

한걸음 다가갈수록 영양의 속살이 느껴집니다 하루라도 좋고 며칠 묵으시면 더 좋습니다 찾아갈수록 매력이 샘솟는 영양으로 오세요

감동을 이어가는 스토리텔링 영양나들이

- 영양의 자연_알뜰산, 선바위와 남이포 삼의계곡, 수하계곡, 분신계곡, 참벽공원, 죽백수림, 외씨버선길
- 영양의 역사_음식디방, 서석지, 두들마을, 주심마을, 김천마을, 지경마을, 금촌마을, 검산성, 옥산마을
- 영양의 박물관/공원_영양국립해남보호공원, 빈딿불이천문대, 영양생태공원, 영양고추홍보전시관, 일일산자생화공원, 영양동력발전단지, 흥림산자연휴양림, 영양산촌생활박물관, 분재수석야생화전시관

금융의 모든 순간

NH농협금융

매주 전화로 꼭 만나는 친구가 있습니다

식사는 거르지 않는지
행여나 적적하지는 않나
혹시라도 이상한 전화를 받을까
하나부터 열까지 물어봅니다

나를 한결같이 챙겨주는
고마운 친구가 있습니다



농촌 독거 어르신 말벗서비스

NH농협은행은 2008년부터 농촌지역 65세 이상 독거 어르신들을 위해
안부 전화 서비스로 따뜻한 말벗이 되어 드리고 있습니다

나의 친구가 되어준 NH농협은행

World EXPO 2030 BUSAN, KOREA |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됨
NH농협은행이 응원합니다

NH농협은행